

아동복지를 향한 사회



李海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사장

역

사적으로 볼 때 산업화 초기까지도 아동은 어른의 작은 형태로만 인식되었을 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에서도 17,8세기에 새로운 노동력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고아나 기아를 팔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가 예사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아동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단지 고아, 기아 등 요보호아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아동문제의 전부였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주로 자선사업과 구제사업의 틀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아동기가 인간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아동은 애정과 부양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아동이 개별 가족적 존재라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며, 사회적 인적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의 핵가족 안에서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왔던 아동문제는 최근에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며, 바로 이 점에서 아동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아동문제는 한국전쟁으로 생긴 전쟁고아와 기아에 대한 보호문제에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아동문제는 보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오갈 데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자선사업, 구제사업을 하던 시대는 지나고 오늘날에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식만 잘 기르면 된다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키울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 및 기능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적 지원체제 확대를

오늘날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 외에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별거 등에 의한 가족해체, 부모의 양육기능상의 결함 등의 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은 아동의 건강한 양육에 부적합한 사회환경을 제공한다. 환경오염, 공해문제, 교통문제 등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며, 텔레비전이나 잡지 등 매스컴에 의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나 성폭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들을 위한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를 마련해주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놀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좌절시키거나 왜곡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이같은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물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아동복지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육사업의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른 보육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를 주로 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가 양육기능상의 결함을 가지는 가정의 아동,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심신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올해로 75번째 “어린이 날”을 맞게 된다. 부디 우리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개성을 키워나가고 민주적인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겠다. 이들은 곧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기 때문이다.